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1호 [루게 제24744호] 주제 103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재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여정동지, 김의순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사회에 들끓는 분위기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데서 영화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만화영화제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므로써 그것을 불씨로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57년 9월에 창립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굴지의 만화영화 창작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촬영소에서 창작한 만화영화들은 어린이들만이 아닌 각계층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생활과 투쟁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으며 우리 만화영화에 대한 국제적인기도 끊임 없이 높아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영화화면에 옮긴것을 비롯하여 수백편의 만화영화를 제작하였으며 세계적규모에서 주문 및 합작만화영화들도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책적대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현대화, 과학화, 컴퓨터화, 수자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창작지도력향과 창작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적극 계발시키며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능력있고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세계만화영화의 발전동향과 추세를 잘 알수 있게 자료연구기지를 더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창작자들이 창작에 전념할수 있게 살림집문제를 비롯한 그들의 생활상문제를 풀어주는것과 함께 정상수영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만화영화는 독창성과 매력, 높은 형상

수준과 빠른 창작속도로 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고, 오래전부터 세계만화영화계에 진출한 우리의 창작가들은 특출한 재능을 보여주어 우리가 도달한 만화영화제작기술을 넘김없이 떨치였다고 하시면서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만화영화제작에 큰 힘을 넣어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과 우리 인민의 사상과 감정정서에 맞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생활을 깊이 연구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

화영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사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창작단, 2창작단의 원도제작실, 배경장작실, 합성록음실, 대사록음실, 편집실, 시사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만화영화 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만은 만화영화 《소년장수》는 인기가 대단했다고, 지금은 50부에서 끝냈는데 앞으로 100부까지 더 만들어 내놓으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연속편으로 만드는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높은 애국심과 상무기풍, 미용양속, 슬기롭고 용감한 투쟁이야기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창작방향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화영화들을 잘 만들자면 반복과 도식에서 벗어나 종자선택과 주제설정을 바로하며 즐거리를 재미나게 엮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만화영화제작에서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배치되는 흥미본위주의, 자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며 주제적인 관점에서 정

그리시면서 이곳 촬영소에서 이미전에

청소년들과 학생들, 근로자들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잘 알수 있게 역사물주제의 만화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이곳 촬영소에서 이미전에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뿔지끄단체와 요르단인사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과의 친선협회 뿔지끄 요르단인사가 16일 부대원들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

# 사설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자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 초선, 제1세대 제1선참호이다. 오늘 농업부문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자는 것이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계속 한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자는데 한사발같이 뿔쳐나 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2015년부터는 더 높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전투승리는 시작전에 마련된다는 말이 있듯이 농사차비를 미리 잘해 놓아야 다음해농사를 시작부터 본때있게 지을수 있다. 지력높이와 씨뿌리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농사차비에 달려있다. 안악군 오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알곡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킨 단위들의 경험은 농사차비를 잘해놓아야 배씨가 든든하여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세세차게 내밀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당의 도대로 농업생산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과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에 대항하여 인민의 행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과 투쟁을 계속해온 우리 인민의 영웅적전군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백년강국을 이겨내며 올해농사를 짓던 그 투지와 열정으로 당면한 다음해농사차비에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다음해에 우리는 영평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뜻깊은 해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만평년도의 날날항기를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가는것이 우리 당의 의의이고 결심이다.

다음해농사를 잘하자면 그 주인공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뿔쳐나 농사차비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지금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에 뿔쳐나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는 대단히 좋다.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기어 이 보답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에 넘쳐 뿔쳐나신 때 절명 못할 오세가지 지출수 있다. 지력높이와 씨뿌리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농사차비에 달려있다. 안악군 오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알곡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킨 단위들의 경험은 농사차비를 잘해놓아야 배씨가 든든하여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세세차게 내밀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당의 도대로 농업생산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과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에 대항하여 인민의 행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과 투쟁을 계속해온 우리 인민의 영웅적전군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백년강국을 이겨내며 올해농사를 짓던 그 투지와 열정으로 당면한 다음해농사차비에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다음해에 우리는 영평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뜻깊은 해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만평년도의 날날항기를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가는것이 우리 당의 의의이고 결심이다.

다음해농사를 잘하자면 그 주인공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뿔쳐나 농사차비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지금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에 뿔쳐나신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는 대단히 좋다.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기어 이 보답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올해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에 넘쳐 뿔쳐나신 때 절명 못할 오세가지 지출수 있다. 지력높이와 씨뿌리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농사차비에 달려있다. 안악군 오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알곡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킨 단위들의 경험은 농사차비를 잘해놓아야 배씨가 든든하여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민의 요구대로 세세차게 내밀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올해에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당의 도대로 농업생산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과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에 대항하여 인민의 행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과 투쟁을 계속해온 우리 인민의 영웅적전군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백년강국을 이겨내며 올해농사를 짓던 그 투지와 열정으로 당면한 다음해농사차비에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다음해에 우리는 영평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뜻깊은 해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만평년도의 날날항기를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가는것이 우리 당의 의의이고 결심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8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만마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72 대련합부대와 제630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합협동훈련의 전과정을 주의깊게 보신 다음 훈련결과를 평가하시고 극복해야 할 결함들과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현대전의 양상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는 오늘 진행한 훈련과 같은 연합협동훈련을 자주 조직진행하여 군중, 병종부대들이야의 긴밀한 협동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의 불의성과 신속성, 일지성과 정

확성을 보장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 각급 부대들의 작전수행능력과 지휘성원들의 작전지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러한 파르스통신, 튀르키예신문 《짜바흐》, 미국의 VOA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회교 브라질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우루파이신문 《라 후벤투드》, 일본의 교도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홀7면대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공공 제991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민주평화경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현대화

본사기자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황해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황해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품으신 농장별을 찾으시어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봉천군 료천리, 강평군 금동리에 모시였다.

지난날 조라한 산간마을이었던 봉천군 료천리는 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령도밑에 농산과 축산, 파수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춘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속에 강령군 금동리는 천지개혁의 새 역사를 자랑하고있다.

평화비대양양사업소, 웅진군 송철리에 모신 모자이크벽화들은 혁명의 선상 백두산에 오르시어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영상이 승업하게 형상되어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대적인 양식기지를 꾸밀것을 발기하시고 평화비대양양사업소를 조직하도록 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업소에 큰 규모의 다시미양식장을 조성하고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웅진군 송철리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과 투쟁을 계속해온 우리 인민의 영웅적전군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백년강국을 이겨내며 올해농사를 짓던 그 투지와 열정으로 당면한 다음해농사차비에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다음해에 우리는 영평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뜻깊은 해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만평년도의 날날항기를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가는것이 우리 당의 의의이고 결심이다.

다음해에 우리는 영평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뜻깊은 해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만평년도의 날날항기를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어가는것이 우리 당의 의의이고 결심이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자

평안남도, 함경남도 군민대회 진행

【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평판국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리기 위한 평안남도, 함경남도군민대회가 26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되어 황당무계한 남조국으로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고 미쳐달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천백배의 징벌을 안길 열적의 의지를 안고 모여온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로 차고 넘치었다.

지방 당, 정전,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같이 건드린자들에게 복수의 불바람을 들뜨우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평판국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리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대회들은 《천만이 총폭탄되리라》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평안남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박태성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께서 낭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장령 리홍식,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북창지구관판평원합기업소 지배인 리영철,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판리위원장 서경심,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평성의학대학 초급 청년동맹위원장 리홍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인민군군인들과 도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인권》소동을 단호히 규탄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일족축발의 정세가 조성된 오늘 천만군민은 온갖 원수들에게 단호한 보복의 철추를 내릴 의지로 가슴끓이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존엄을 훼손시키려고 고안해낸 파렴치한 정치적사기극이며 이것은 곧 우리의 참다운 인권을 침탈하고 공화국의 국권을 해치려는 로골적인 선전포고이라고 폭로하였다.

불순적대세력들이 유엔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조작해낸 이 특대형모략극은 우리의 주권전복을 노린 대조선압살정책의 가장 악랄한 회신판이라고 단죄하였다.

세계혁명의 인권불모지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EU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박근혜당과 같은 어중이떠중이들과 야합하여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을 꾸며낸 그자체가 언어도 안일수 없다고 격분하여 넘쳐 말하였다.

천실은 침략의 원흉 미제를 철저히 소멸해버리지 않고서는 세계의 평화도, 진정한 인권을 담보할수 없으며 시대의 오물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와 번영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더욱더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주체의 사회주의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달뛰는 원수들을 철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적들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인권》평판국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리기 위한 정전의 성전에 산악같이 뿔쳐나신 군을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은 력사의 의하여 확증된 진리입니다.》

연설자들은 백두의 선군정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권위를 견결히 옹위하며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혁명당군은 최후결전의 시각이 온다던 세기물이 이어 여세기 버려버려온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여세기 틀어쥐고 원수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경제강국건설에서 대박, 대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몸소 명예농장원이 되주시고 새로운 농업지도자가 창조된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도인의 농업근로자들은 가장 참된 삶을 누리리라고 하면서 인민유린의 왕초인 미국과 남조선피괴당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인권을 모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성된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투상태를 견지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명만 내리신단 산악같이 뿔쳐나신 소굴을 지우상에서 흔적도 없이 영영 쓸어버리고 승리의 장래를 축복을 쓰아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민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대중중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께서 낭독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군관 정성일,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2.8비날론합기업소 로동자 최광일,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농장원 리연진,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한인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성명을 온 나라 천만군민의 분노와 보복열기가 하늘에 닿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은

우리를 더욱 세차게 지쳐올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심드높이 합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할로써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적들과는 달리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할로써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권력과 석탄, 수산부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흥남과 풍성, 검덕과 대동미를 비롯한 도안의 중요전투장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에 적국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군민대회들이 끝난 다음 군중들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남강도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에 대한 타격을 담은 구호들을 합창하며 부르며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함경남도군민대회 진행



#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온 나라에 복수의 불길이 활활 라오르게 하자

## 반미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최후승리를!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한 당, 근로단체 일꾼들의 신념의 목소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접한 온 나라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반미대결,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의 자주적인 삶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승배, 사회주의의 승배는 반미대결,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당일꾼들과 근로단체 일꾼들은 온 나라에 계급교양의 불꽃을 세차게 일으켜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미제와의 판자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미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남강도 미제와 괴뢰들이 존엄 높은 오진, 인권의 진정함을 리상향인 우리 나라를 감히 현혹하며 반공화국살상행위를 악랄하게 강행하고있는데 우리 혁명의 계급적지를 더욱 강화하여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 줄 필승책의 보름을 안겨주시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의 당일꾼들과 근로단체 일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평도를 높이 받들고 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 우리의 혁명적지, 계급적지를 육성정력으로 지켜갈 신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당중앙위원회는 한 일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천박물관에 대한 현지지도는 남강도 미제와 괴뢰들에게는 철퇴를 들이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최후승리의 보름을 안겨주셨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자자구구는 우리 당사 일꾼들이 뼈에 쏘아박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구현해야 할 계급교양사업의 귀중한 교과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계급교양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불어치게 하겠다.》

박태덕 황해북도당책임비서는 신천박물관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에 접한 당일꾼들과 근로단체 일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천

박물관에 대한 현지지도는 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반미대결전으로 힘있게 불어넣어줌으로써 최후승리를 앞당겨주시려는 백두령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

도당위원회는 계급교양에 큰 힘을 넣어 도안의 인민들을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만장약한 선군혁명투사들로 역세게 준비시키겠다.》

김영일 개성시당책임비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천박물관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에 접한 당일꾼들과 근로단체 일꾼들이 비상한 자각을 안고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 그 어디서나 그러하지만 본계연선에 위치한 우리 개성시에서의 계급교양사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적들과 교를 맞고있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계급교양에 큰 힘을 넣어 그들 모두를 반미대결전의 제일투사로 키워나가겠다.》

전경선 남흥청년회화합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에 접한 현지지도는 우리 당일꾼들이 계급교양의 중요성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고 분발해나서게 하는 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신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청년동맹원들과 소년단원들에 대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그들모두를 반미대결투쟁의 제일전선으로, 선군혁명의 후비대로 역세게 키워나가겠다.》

봉원리 직속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천박물관에 대한 현지지도는 사상교양단체인 온 나라의 직맹조직들을 세차게 끓게 하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동맹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반미대결전에서 선군조선로동계급의 본래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어찌 이들의 심정만 이라. 그렇다. 이 땅 그 어디서나 우뚝처럼 터져오르는 심장의 분출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본래의 비극을 끝내고 통일된 천하제국을 하루하루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비상한 계급의식, 최후승리에 대한 신념과 락판의 대항성이다.

본사기자 김영철

##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 신천땅에서 울린 계급교양중시에 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금옥같은 명언이 온 나라에 메아리치고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반미대결, 계급교양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 사회주의의 승배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것을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계급교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심장이 떨리게 된다.》

이것이 어찌 계급교양만지도국 한 일꾼의 심정만이라. 모든 당일꾼들, 근로단체 일꾼들이나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 반미대결,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전염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세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현실은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천땅에는 피의 교훈이 있다.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신천땅에서 무려 수만명의 인민들이 무참히 학살된것은 해방후에 계급교양을 잘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시었다.

언제나 신천박물관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비라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지 못하다보니 적들과 맞서싸우지도 못하고 무명하게 죽었다고,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계급교양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다.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자기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켜낼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운동역사에 새겨진 철리

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의 비극적사태가 역사에 남긴 교훈은 무엇이었든가. 계급교양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키는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의 길이며 계급적지가 허물어지면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게 된다는것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반미대결,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의 자주적존엄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의 승배, 사회주의의 승배는 반미대결,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혁명적지, 계급적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투철한 반미대결계급의식과 주적관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한시도 늦추없이, 한순간도 소홀히 함이 없이 즐거차게, 실속있게!

이것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가는데서 전지해야 할 원칙적문제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온 나라에 계급교양열풍이 세차게 불어치게 하여 한다. 계급의식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세 세대에 대한 계급교양에 각별한 힘을 넣어야 한다. 계급교양사업들을 잘 꾸리고 계급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시할수록 벌어나야 한다. 계급교양의 전초선으로 지켜가는 우리 당의 핵심이며 직접적전 선군혁명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반미대결, 계급교양을 떠나서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사회주의의 승배를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혁명적지, 계급적지를 끊임lessly 다져나가야 한다.

며 좋은 점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범장소를 조직하고 강의합평과 강의경연을 조직하는 경우에도 살인만행장소에서 참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직하였다. 이것은 강사들의 강의수준을 높여주는데서 좋은 작용을 하였다.

이 과정에 군중교양과장 김선비, 강사 안경애동무를 비롯한 모든 강사들의 강의수준이 한계단 높아졌고 그것은 그대로 강의의 실효로 나타났다.

이곳 계급교양강사들은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전해진 날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한 일꾼이 우리에게 격정에 넘쳐 흐린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특히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 세대들에 대한 반미대결, 계급교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었습니다. 혁명의 주력으로서 등장한 세 세대들을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만장약한 선군혁명투사들로 역세게 키워주시려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우리 세대의 자각이 더욱더 무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세대의 자각! 우리 혁명의 전도도, 최후승리의 승배도 우리 세 세대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가 이 짧은 말에 함축되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조건에서 특별한 중대한 문제로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주체적인 조선청년운동에서는 청년대오를 혁명의 계승자,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의 업적이 얼마나 뜨겁게 새겨져있는것인가.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대오에서 우리 당의 믿음과 생명을 오직 당신과 우리의 혁명적지, 계급적지를 철옹성같이 지켜 조국을 빛내어왔다. 력사적교훈은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킬

우리 당은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청년들을 높은 혁명적지, 계급의식을 지닌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역세게 키워오셨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 나라는 청년동맹일꾼들과 청소년들의 신념과 의지의 목소리가 이 땅 그 어디서나 울려지고있는것이다.

《신천을 잊지 말자. 투철한 계급의식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남강도 미제와 괴뢰들과 괴뢰세대의 무거운 의무를 다스릴 각각자. 우리 세대가 있는 한 제2의 신천은 있을수 없으며 최후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총창을 비껴는 초소의 병사도, 철의 기지를 지켜선 성강의 청년동맹일꾼도, 지동의 청년단부도, 교정의 청년대학생도 아니 사회주의수호전의 모든 전투장들을 지켜선 수백만 청년들이 한목소리로 떠치는 이 비상한 각오, 세대의 자각이 이 땅의 승배가 되어 불어오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우리 세대의 자각!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주체혁명의 붉은기를 앞장서서 떠날려가려는 청년전위들의 결사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윤 명 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사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지면 그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귀족같은 만행을 보여주는 속도이며 력사의 고발장인 수산리계급교양관에는 오늘날 변함없이 그 천인공노할 만행자료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수산리계급교양관의 강사들이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당원들과 인민군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직

업적인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게 하고있다.

언제나 강사들의 강의합평회에 참가하였던 판강 최정숙동무는 생각이 깊어졌다. 강사들의 강의수준이 웅장한 수준에 있지 못하였던것이다.

이 땅에서 혁명의 포성이 멎은지도 수십년제일이 지났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날로 조박화되고있다.

강사들은 사람들에게 력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애국자들과 인민군들의 넋을 대변하여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죄행을 발가놓

수산리계급교양관에서 대우를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선도가 되어야 한다.

당조직의 지도 밑에 계급교양관에서는 강사들이 전신품들과 직관물들의 내용을 환히 알도록 하였다. 목적자들을 만나보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적수행시기 수산리에서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이 저지른 살인만행자료들 보다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는데 힘을 냈었다.

일꾼들은 강사들과 함께 한 가지 자료를 찾기 위해 수십리 발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목격자들의 집에서 밤을 지새우며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

였다. 그 과정에 미제가 당시 백운리 당세포위향이었었던 영수가족을 학살하는데 리용한 짐승들을 비롯한 증거물들이 새로 발굴되게 되었다. 강사들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보충강의를 만들었다. 강사들의 강의를 생동한 자료를 첨부하여 진행하니 참관의 실효를 더욱 높게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여러 공간들을 잘 리용하였다. 계층별에 따르는 해설강의를 잘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있는 강사들의 강의에 대한 참관과 합평을 조직하며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

계급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개성근대생산업동조합 조급당위원회에서 계급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 생산자들 하여금 언제나 투철한 계급적자각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전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조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세포비서들과 당조급선진일꾼들은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에 실리는 계급교양사업에 대한 독보물과 리용행하는 등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시계급교양관에 대한 참관조직도 짜고 들어 생산자대중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이 땅에서 저지른 친구에 용납 못할 만행들을 잘 알도록 하고있다.

한편 최근에 더욱 악랄해지는 미제의 반공화국살상행위를 말해주는 자료들을 여러 장소들에 비치해놓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도 적극 진행하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부수결의 의미, 음면모임 등도 잘 조직하여 생산자대중이 멀쩡한 기계사물에 대한 독보물과 리용행하는 등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시계급교양관에 대한 참관조직도 짜고 들어 생산자대중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이 땅에서 저지른 친구에 용납 못할 만행들을 잘 알도록 하고있다.

한편 총리는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자강도안의 전제 일꾼들이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누에고치생산기를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된 착산기지를 세우고 고기와 알생기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평성합성기공공장을 들어 보면서 기술계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련관단위들에서 생산선에 필요한 기기와 재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세대의 자각

세대의 자각! 우리 혁명의 전도도, 최후승리의 승배도 우리 세 세대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가 이 짧은 말에 함축되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조건에서 특별한 중대한 문제로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주체적인 조선청년운동에서는 청년대오를 혁명의 계승자,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의 업적이 얼마나 뜨겁게 새겨져있는것인가.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대오에서 우리 당의 믿음과 생명을 오직 당신과 우리의 혁명적지, 계급적지를 철옹성같이 지켜 조국을 빛내어왔다. 력사적교훈은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킬

우리 당은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청년들을 높은 혁명적지, 계급의식을 지닌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역세게 키워오셨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심장깊이 새기 나라는 청년동맹일꾼들과 청소년들의 신념과 의지의 목소리가 이 땅 그 어디서나 울려지고있는것이다.

《신천을 잊지 말자. 투철한 계급의식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남강도 미제와 괴뢰들과 괴뢰세대의 무거운 의무를 다스릴 각각자. 우리 세대가 있는 한 제2의 신천은 있을수 없으며 최후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총창을 비껴는 초소의 병사도, 철의 기지를 지켜선 성강의 청년동맹일꾼도, 지동의 청년단부도, 교정의 청년대학생도 아니 사회주의수호전의 모든 전투장들을 지켜선 수백만 청년들이 한목소리로 떠치는 이 비상한 각오, 세대의 자각이 이 땅의 승배가 되어 불어오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우리 세대의 자각!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주체혁명의 붉은기를 앞장서서 떠날려가려는 청년전위들의 결사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윤 명 철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정성 남작음

계급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개성근대생산업동조합 조급당위원회에서 계급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 생산자들 하여금 언제나 투철한 계급적자각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전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조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세포비서들과 당조급선진일꾼들은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에 실리는 계급교양사업에 대한 독보물과 리용행하는 등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부수결의 의미, 음면모임 등도 잘 조직하여 생산자대중이 멀쩡한 기계사물에 대한 독보물과 리용행하는 등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시계급교양관에 대한 참관조직도 짜고 들어 생산자대중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이 땅에서 저지른 친구에 용납 못할 만행들을 잘 알도록 하고있다.

한편 총리는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자강도안의 전제 일꾼들이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누에고치생산기를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된 착산기지를 세우고 고기와 알생기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평성합성기공공장을 들어 보면서 기술계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련관단위들에서 생산선에 필요한 기기와 재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신 1돐을 맞으며 기념보고회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등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들께 기념보고회가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대학일꾼들, 교직원,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리종현 평양건축종합대학 당부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지도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건축부문에서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는 대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근본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부강조국건설업무를 빛나게 실현해나갈 위대한 구상을 펼쳐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학을 건축과학분야

의 종합적인 인재양성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었다.

여러차례에 걸쳐 대학사업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면서 대학의 새 교사건축형성안도 몸소 지도하여주시고 대학명칭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명명해주시었다.

주제102(2013)년 11월 26일 대학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60년간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건축물들의 형성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수많은 건축작품들의 창작설계와 인적육성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주셨으며 자신께서 몸소 대학명예총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최상최대의 믿음과 영감을 안겨주시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시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주제적건축인재양성의 거점으로 꾸러지게 되었다.

보고자는 지난 1년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주제적인 건축미학사상과 평도업적들을 옹호고수하고 같이 빛이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건축창조와 인적육성사업에서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학을 절세위인들의 평도업적단위답게 더 잘 꾸리며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첨단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되고 많은 학위학적소유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들이 배출되었다.

보고자는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신 뜻을

발하여 강국조건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원, 연구사들은 당이 제시한 새 세기 교육혁명방향을 높이 받들고 불같은 열정과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으로 교육과학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커다란 혁신인재를 더 많이, 더 훌륭하게 키워내야 할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야심찬뜻으로 공부와 꿈을 안고 나간을 아끼가며 배우고 또 배우고 나라의 건축을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보고자는 모두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제적건축미학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평도따라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최후대, 전초기로서의 사명감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시상수도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은 물량구조를 건설하고 샘플공급소의 주변에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를 심어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 인 투쟁에 의하여 해산에서 샘플공급소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박봉주총리 강계시의 여러 공장 현지로해

【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연말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는 강계포도술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 강계연필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수로 훌륭히 개건된 강계포도술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가지었다.

협의회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생산정성화를 위한 원로기조성을 하고서 끝내고 제품포장의 질을 개선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총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신사상, 후대사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강계목재가공공장, 강계연필공장의 생산정성을 료해하고 가구와 마감건재, 연필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가구들과 질 좋은 연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총리는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자강도안의 전제 일꾼들이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누에고치생산기를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된 착산기지를 세우고 고기와 알생기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평성합성기공공장을 들어 보면서 기술계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련관단위들에서 생산선에 필요한 기기와 재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박봉주총리 강계포도술공장 현지로해

시상수도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은 물량구조를 건설하고 샘플공급소의 주변에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를 심어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 인 투쟁에 의하여 해산에서 샘플공급소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해산에서 해화학에서 샘플공급소를 일떠세우고 봉사를 시작하였다.

시에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주민들에게 사철 맑고 깨끗한 샘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적투쟁에 맞게 자연흐름으로 샘물을 보정할수 있는 설계를 완성한데 기초하여 전

샘물공급소 새로 건설

설 등 모든 공사를 팀체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갔다.

그들은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증거를 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말려진 공사파제를 일일별, 평정별로 이김없이 수행하였다.

샘물공급소 새로 건설

설 등 모든 공사를 팀체전의 방법으로 밀고나갔다.

그들은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증거를 안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말려진 공사파제를 일일별, 평정별로 이김없이 수행하였다.

시상수도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은 물량구조를 건설하고 샘플공급소의 주변에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를 심어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 인 투쟁에 의하여 해산에서 샘플공급소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시상수도건설사업소 로동계급은 물량구조를 건설하고 샘플공급소의 주변에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를 심어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 인 투쟁에 의하여 해산에서 샘플공급소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강계포도술공장 현지로해



#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배짱을 가지고 조국의 대지를 넓혀간다

##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로동계급

### 길이 전해가리,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를

2년 수개월의 날과 달이 흘렀다. 첫 발파의 동음이 높이 울린 그때로부터 800일의 낮과 밤을 이어온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홍건도간석지가 자기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여러 섬들을 묶고 연결하며 1호, 2호, 4호방조제가 날마다 우르르 장대하게 뻗어갔다. 수천정보에 달하는 간석지벌을 한뼘에 그려안으며 수천m의 3호방조제가 두 전선에서 서로 마주 향하여 전진하고있다.

섬과 섬을 이으며 날마다우에 시원하게 뻗어나간 방조제우에서 보면 조국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진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외-와- 격정을 터놓고있고 사시정철 사나운 날마다우에서 한치도 한치 조국땅을 넓혀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은 뜨겁게 젖어온다.

이곳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

동계급은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 참으로 자랑할만 한 로리적 위훈을 이룩하였다.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길들여야 하는 간석지건설자들에게 과연 무슨 애로와 난관인들 없었겠는가. 하나 간석지건설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방조제 한가운데 큼직하게 새겨진 불멸의 글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겨주신 신념의 구조를 바라볼수록 최영덕, 강성철 등 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로부터 제방 한뼘의 신호공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심장에 뜨겁게 용솟음치는 것이 있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진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합니다.》

자연이 이기는가, 인간이 이기는가? 엄혹한 자연의 광란앞에서 간석

지건설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긴다. 절세의 애국자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자연을 이긴다! 간석지건설자들의 눈앞에 무엇이 안겨오는것이 있다. 유화작품 《대계도간석지의 저녁!》

파산간석지 2계단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며 홍건도간석지건설준비로 온 연합기업소가 기쁘고있던 두해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이 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보내주신 이 유화작품은 간석지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을 한없는 격정과 환희로 끓여버리게 하였다.

그 화폭앞에서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을 대계도기적의 창조자들로 온 나라에 높이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이런 간석지건설자들이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유화작품앞에서 이루어졌던 고난의 시기 우리 수령님의 념원,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어 대계도의 기적을 창조하였던 그들의 투쟁기풍으로 거창한 대자연개조

작업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하라는 절세의 애국자의 한없는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그 총정의 맹세를 담아 연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은 이렇듯 지어지지 않고 모든 성과를 이 곳 로동계급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며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여!》라고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은 그대로 기적을 낳는 원천이다.

홍건도간석지건설자들은 실천투쟁으로 이 진리를 확증하였다. 지난해 12월말 완공된 4호방조제의 수심m구간이 꺼져내리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내려앉은 방조제구간으로 바다물이 덮쳐올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상상할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었다.

은 연합기업소가 펼쳐나섰다.

집룡과 맞닿아 돌과 흙을 나르고 온몸이 그대로 방파제가 되어서라도 기어 방조제를 지켜내려는 절사의 각오와 투지가 길길이 날뛰는 바다의 먹울 들어잡고있었다. 하루낮, 하루밤의 결사의 투쟁으로 수백m의 돌과 흙을 운반해놓으면 또다시 그 모든것이 순간에 바다물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러기를 10여번...

하나 용감한 간석지건설자들의 투지는 더욱 배배해졌다. 한겨울의 차디찬 바다바람도, 와-와- 소용돌이치는 바다물도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낮에 밤을 이어 결사전이 벌어졌다. 그해의 마지막밤도 그들은 이렇게 싸우며 방조제우에서 새날을 맞이했다.

침내 해가 밝아왔다. 되풀이되는 위험과 더불어 방조제는 또다시 바다를 막고 끄떡없이 솟아올랐다.

바로 그 방조제우에서 새해의 아침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으며 격정에 젖어 《단체!》의 환호성을 울린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경에하는 원수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심장의 목소리에 짓눌려온 듯 서해의 경우론 파도도 같기를 숙이며 조용히 처절격격기립이었다. ...

간석지제방은 이렇게 뻗어가고있다. 1호, 2호, 4호방조제에 이어 오늘은 3호방조제. 조국땅은 이렇게 넓어지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에 떠받들려, 총정의로 높이는 간석지건설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정열에 의해 내 조국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있다.

2012.4.27 경에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은 그대로 기적을 낳는 원천이다.

홍건도간석지건설자들은 실천투쟁으로 이 진리를 확증하였다. 지난해 12월말 완공된 4호방조제의 수심m구간이 꺼져내리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간을 지체한다면 내려앉은 방조제구간으로 바다물이 덮쳐올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상상할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었다.

은 연합기업소가 펼쳐나섰다.

제방성토에 필요한 수백m의 돌과 흙을 모으기 위해 다사, 보산, 장송, 로하, 석화, 파산 간석지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산지주와 석화지구에서 대방파를 위한 도갱굴진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하고 3호방조제에 필요한 돌과 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연합기업소에서는 안산지구에서 수심만산대방파를 진행할것을 결정하고 그 준비를 다그쳤다. 그 소식은 굴진을 맡은 사업소일군들을 긴장시켰다. 수만산도 아니고 단번에 수심만산을 대방파로 통째로 날려보내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그것도 기일은 불과 몇달!

도갱굴진을 위해 사업소들이 총동원력을 발휘한 어느날이었다.

연합기업소 현장지휘부 책임자인 기상장 서원길동무는 안산지구의 도갱전투장에서 석수가 예상외로 쏠아진다는 말을 들었다. 레우가 없는 상태에서 버려져있는 돌은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없었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도갱입구에서부터 물이 발목을 쳤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석수량이 많아졌다.

한동안 굴안을 유심히 살펴보는 그의 귀가에 뜻밖에 지역적벽 물줄기가 흐르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가? 그들은 다간석지건설사업소 1직장 당세포비서 조정수동무와 작업반장 박은철동무들이었다. 다가오는 그들의 얼굴에 혼연한

웃음이 비껴있었다. 《굴진은 순간도 멈출수 없습니다. 굴진실적이 제방길이 아니겠습니까.》

《달아오른 몸을 석수에 식히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들은 절절 웃으며 말했다. 지만 기사의 눈굽은 젖어 들었다.

이런 각오, 이런 배짱을 안고 모두가 펼쳐나섰다. 석수를 맞받아 한치한치 압박을 열어제끼는 긴장한 전투로 날과 달이 흘렀다. 조급일군들이 앞장에서 착각기둥을 울리며 압박을 뚫고 나갈 때 로동자들은 감항을 헤치며 버림을 실은 광장을 연속 끌어냈다. 피대를 마친 굴진들이 려한기업소의 일군들이 수고했다고, 꼭 쉬라고 권고하였지만 그들은 이동식 수를 마치고는 그대로도 또다시 막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특이한 공적으로 안산지구의 수심만산대방파를 위한 도갱굴진을 맡은 사업소들에서는 교대별굴진계획을 알당겨 수행하며 한달은 걸린다고 하던 도갱굴진계획을 열흘이나 앞당겨 세웠다. 자력갱생의 위훈을 세웠다.

어찌 안산지구에서만이겠는가. 석화지구에서도 수심만산대방파의 동음에 화답하려는 듯 제석전투에 한사팔없이 뛰어났다.

수심만산을 통째로 날려보낼 그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날마다를 가로막는 수심리 제방, 그것은 결코 돌과 흙으로만 쌓아진것이 아니다. 누가 보진않고, 알지못할건 막장에서 굳은 암반을 맞받아 한치한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의 헌신의 구슬땀이 그대로 응결되어 제방으로 뿔뿔이 뚫어지지 않는 일출세를 보인다.

공사장의 《진소리》직장은 물론 새 세대 건설자들의 가슴속에도 오직 하나 배수문을 그 어떤 날에도 끄떡없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게 건설할 결심뿐이다.

이제 완공의 그날이 오면 배수문바닥은 바다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적어가는 향심의 자욱은 가슴과나설때는 간석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그들의 불타는 마음이란듯 건설장에 나붙은 《행복한 레일을 위한 길에 땀을 아끼지 말자!》라는 글발이 저녁노을을 만나 더욱 화려히 이루어진다.

힘을 넣었다. 작업도로주변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그 면모를 일신시켰고 합숙주변에는 수심그루의 파잎나무를 심고 꽃밭과 잔디밭을 조성하였다. 집집중우리며 부엌까지도 잘 꾸러놓아 후방공급사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정든 집, 간석지건설자들은 헌정합숙을 누구나 이렇게 후회되고있다. 회고과 광만에 넘친 그들의 가슴은 보다는 위훈에 대한 열망으로 끓여번지고있다.

기어 이 기발한 간석지건설자들이 터치는 기적의 환호소리 수평선 너머로 메아리쳐간다. 저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변모될 그날은 결코 멀지 않다! 서해바다도 호응하듯 와-와-파도쳐 설레인다.

글 투기자 송 창 윤 사진 본사기자 신 충 령

### 본지실천이 곧 제방의 길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제석장에서 제방끝까지는 불과 천수백m, 길지 않은 운행거리이다.

하지만 순간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운행거리이다.

도그럴것이지만 수m폭의 제방과 우천에서는 바다물이 출렁이고있다. 이차 실수하면 자동차가 바다속으로 굴러떨어질수 있다.

다시계화사업소 대화화물자동차 2551호 운전사 문봉은 동무의 얼굴에는 만만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제석장에서 차적제함에 유능하게 큰돌을 실고있는 유압식굴착기운전공에게 손사놓을 하며 싱긋 미소를 보였다.

우리가 무슨 뜻인가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술가락으로 밥을 담듯 적제함에 돌을 차곡차곡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한m<sup>3</sup> 더!

자신것입니다.》

이유하여 적게가 끝났다는것을 알리는 신호소리가 울렸다.

바릉- 방동소리에 이어 2551호는 제방으로 향하였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내달린다. 순식간에 차는 제방끝에 당도하였다.

불과 수m폭의 제방에서 운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애국자란 침오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출몰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입니다.》

간석지건설자의 자욱은 결코 제방우에만 찍혀있는것이 아니다.

여기는 바다물면으로부터 깊은 곳에 있는 배수문공사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로동자들이 기초공크리트기작업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사업소기상장 정대식동무의 열

현지도 바다밑에 새겨가는 량심의 자욱

《간석지는 나라의 만년재보야. 방조제가 든든하면 이 배수문이 끄떡없어야 해. 그 어떤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짧은 로동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알았습다!》라고 당차게 대답한다. 천둥과번개의 동음이 더욱 높아진다. 다짐작업이 끝나기 바쁘게 미장칼로 기초공크리트면을 유리편처럼 만들만큼 하게 미장해가는 오랜 기능공인 리영철동무, 그뒤를 따라 제대군인 신경복동무도 나무밑에

《우선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석지운전사가 아닙니까. 담이 없으면 이 날마다 어떻게 싸이겠습니까.》

신호공의 신호에 따라 차는 정확히 제 위치에 막돌들을 쏘는다. 물보라가 휘뿌려진다. 이윽하여 차가 울려퍼지며 다시 제방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달린다. 조향롤을 틀어던 문봉은

말하였다. 《교대운전사가 나오기 전까지 한참 더 뛰어야겠는데...》

교대시간이 다된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자기 교대에 2551호를 돌과하였다. 사업소적으로 제일 앞섰지만 그는 마음의 랑계를 늦추지 않고있었다.

한량만 더- 굴착기운전공에게 손신호를 보내는 그의 입에서 금방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듯했다. 우리는 또다시 제방우로 출발하는 2551호에 손을 들어 인사사를 보냈다.

위훈! 그것으로 하여 간석지건설자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 아니라.

현지도 바다밑에 새겨가는 량심의 자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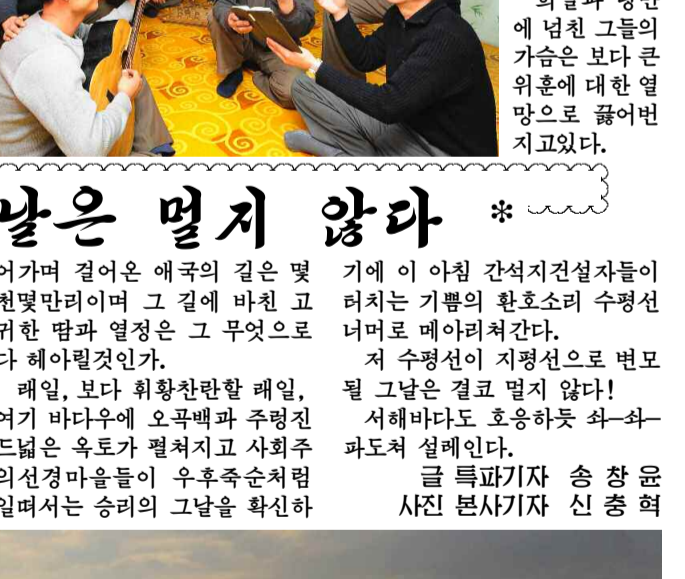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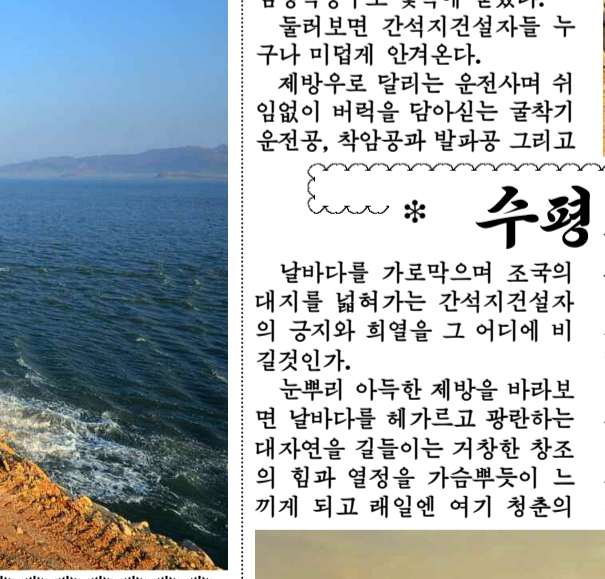
《간석지는 나라의 만년재보야. 방조제가 든든하면 이 배수문이 끄떡없어야 해. 그 어떤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짧은 로동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알았습다!》라고 당차게 대답한다. 천둥과번개의 동음이 더욱 높아진다. 다짐작업이 끝나기 바쁘게 미장칼로 기초공크리트면을 유리편처럼 만들만큼 하게 미장해가는 오랜 기능공인 리영철동무, 그뒤를 따라 제대군인 신경복동무도 나무밑에

오늘의 랑만은 레일의 위훈

간석지건설자들은 1년 열두 달치고 정든 집보다 바람채찬 간석지에서 생활하는 때가 더 많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 현장합숙을 건설자들의 정든 집처럼 아늑하게 꾸리기 위해 큰



### \* 수평선이 지평선으로 될 그날은 멀지 않다 \*

날마다를 가로막으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간석지건설자의 긍지와 희열을 그 어디에 비길것인가.

눈부러 아득한 제방을 바라보면 날마다를 헤가르고 광란하는 대자연에 길들이는 거창한 창조와 열정을 가슴부풀이 느끼게 되고 매일엔 여기 청춘의

제방 아득히 뻗어가리 굴뚝결고 새 거리 솟아나 웃음꽃 넘쳐나리라는 노래가라이 절로 울려나온다.

조국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사람들, 간석지건설자들은 누구나 긍지높이, 자랑에 넘쳐 이렇게 웅얼다. 그들은 결코 붓으로 종이

어가며 걸어온 애국의 길은 몇 천만리이며 그 길에 바친 고귀한 파프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것인가.

매일, 보다 휘황찬란한 레일, 여기 바다우에 오목박과 주렁진 들뜬은 옥도가 펼쳐지고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밀려서는 승리의 그날을 확신하

평양 건축 종합 대학 교육과 학성 과 전시회 진행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평양건축종합대학 현지지도와 경에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높이 모신 1식을 맞으며 교육과 학성 과 전시회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지난 1년간 교육사업과 과학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자료들이 전시되었다.

학생들의 공간과 구조에 대한 표상능력을 높일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기간 교육과 학성 과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주체의 건축발전에 쌓아올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대학의 교육과 과학 연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이 26일 철차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방문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대표단 출발

로씨야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시 초

신천의 결산은 끝나지 않았다

조광원

력대로 조선인민앞에 만고의 죄악을 저질러온 미제가 오늘 신성한 유엔무대까지 더럽혀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벌여놓은 이 시각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곁을 눈빛들이 원한을 품고 신천으로 비주같이 날아가고있다.

세계의 망명사이어, 물어보자. 누가 우리 조국의 한 부분을 세기를 이어 흘러가지 않는 피맺힌 원한의 땅으로 만들었는가.

어떤 극악한 살인귀들이 불과 2개월

도 못되는 기간에 신천군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명을 인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는가.

말지도 않은 지난 세기에 원시시대의 식인종들마냥 미친듯이 사람잡이를 한 미제의 피비린 죄악의 만무장이 아직 력히 남아있는데, 이 땅의 한걸 지층을 들추면 억울하게 숨진 수만 목숨들이 천백배 복수를 당부하는 피결은 헤집이 터져나와 강산을 울리는데 누가 누구더러 《인권》 타령을 하고있는가.

남녀로소를 가림없이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고 굶겨죽이고 얼겨죽이고 어린이들을 염마름에서 강제로 매내어 화약창고에 가두고서는 회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이고 사람들의 머리에 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죽인 인간의 후손들이 감히 이 땅에 대고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신군시대가 낳은 불굴의 시인인 영애군인자가 조광원은 몇해전 원한의 땅 신천을 밟고나서 미제침략자들에게

대한 뉘어오르는 증오를 담은 시초 《신천의 결산은 끝나지 않았다》를 창작하였다.

오랜 세월 이 땅에 세차게 굶이쳐온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담은 이 작품에 6월4일문학상이 수여되었다.

조선인민의 철위지원주 미제의 피비린내나는 죄악을 절규하는 목소리가 더 높이 울려지고있는 오늘 활화산마냥 끓어번지는 이 땅의 민심을 담아 본사 편집국은 시초 《신천의 결산은 끝나지 않았다》를 전제한다.

신천-제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천은 원수의 귀족같은 만행은... 신천이라고 살인만행 더 심했고 재명이라고 강경자가 망송했던가

이 땅의 생명체는 모조리 죽이라

야수의 살인명령에는 계신아 따로 없었거늘 임신부라고 손이 떨렸고 젖먹이아기라고 서슴었더니

오 인두검을 쓴 야수는 세월도 진화시킬수 없나니 새 세기라고 이 야수들은

인간으로 만들었더니

오늘도 내 조국 남쪽땅에선 꽃나이스녀들이 무한케도 애 찢겨지고 대륙과 지경을 넘어 미제의 발굽 닿는 곳마다 이 시각도 침략과 살육이 벌어지고있나니 신천은 이 땅에만 있는것인가

자그마한 표식비 신천땅은 여기서 끝나도 이 앞에서 더욱 굳어지는 우리의 의지

미제가 없는 내 조국땅 야수없는 행성을 기어이 만들교야말

우리의 복수에는 한계가 없다!

너의 교각 밑에 무리로 수장될 때

정녕 이대로는 못 간다고 너 비분에 떨며 흐르는 세월을 붙잡았더니

강물은 흘러 세월을 넘겼지만 그날의 피물은 흘러보낼수 없어 지금도 너의 기둥에 너의 가슴에 피숫겨 증오를 끓이고있나니

그냥은 누구도 못 지나 평범한 날에도 존엄한 그날을 걷는 다리어 넥타이를 날리는 소년단원아 이들도

내우에선 나이를 앞질러 계급의 기를 자배우거늘

피의 지층

우리 사는 이 땅은 얼마나 좋은가 지상에는 행복의 거리와 마을들 지하에는 가득찬 금은보화 허나 우리 어찌 다 알았으랴

오늘도 신천땅 이름없는 산기슭 한 기장도 못 미친 땅속에서 처참한 유해가 또다시 나뉘어

저 멀리 고생대의 유적도 아닌 20세기 미제의 학살흔적 다시한번 소스라쳐 생각노니 물어보자 야만의 시대가 이렇듯 새 세기 가까이 있었는가

사람들이여 목도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땅을 쳐 통곡해야 하는가 우리 딛고 사는 학원의 땅밀에 눈을 못 감고 물려있는 이 명흔들앞에서

검붉은 이 흙을 떠보라 그들의 살점은 아닌가 아직도 복수의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팡-팡 때린다

지금껏 이렇게 찾아낸 유골은 얼마고 찾지 못한것은 또 얼마일가

아름다운 창조물의 기둥을

바코라

아이 한결 피의 지층을 잇는 다면 우리가 쌓아가는 행복의 그 모든것을 잃게 되나니 내 이 지층을 이 땅의 역사 계급사에 피의 교환으로 새겨 넣으리라 후대들이 대를 이어 영원히 읽도록!

이 한을 다 못 풀체 해마다 먹은 나이를 아프게 세고 아이들은 이 봉분에 꽃을 놓으며 해마다 증오의 나이를 먹나니

총검이 서리말치는 전초가 그 어느 가슴엔들 너희들이 없으랴

쇠물을 쪼이고 오편을 익히는 그 어느 심장엔들 너희들이 없으랴

순간이나마 너를 잊고 사는 생이 있다면 그 삶은 또다시 흙에 묻히리

아 먼저 간 자식은 땅이 아닌 엄마의 가슴에 묻힌 다지만 그 어머니처럼 함께 묻힌 신천의 아이들

우리는 복수로 늙는 수천만의 가슴에 묻고산다

죽어서도 살아 뛰는 아이들의

심장인듯 피의 대지 한복판에 솟아있는 봉분이어

역사의 흐름이 여기서 멎었는가 원한의 용어기가 여기에 쌓였는가

신천, 너를 그대로 안고가기엔 실리는 아픔이 너무 크구나

허나 나는 끝까지 안고가리라 이 아픔이 우리에게 천만근이 여도 이것은 결코 짐이 아니기에

방은 좁고 어둠건만 방공호담벽에 빛나는 글발 《조선로동당 만세!》

심장에 안고간 삶의 모든것 원수들은 그것을 가두려 했건만 가슴수 없는 빛으로 글발은 영원히 눈부신다!

이 땅에 뿌리를 박은 신천의 나무들

우리는 어느 하나도 무심히 보지 않는다

신똥 배지는 더욱 못한다

좁은 강을 사이에 두고

결산의 날이 앞에 있어

너와 맺고사는 복수의 피줄기만은 끊기지 않으리라

피의 년륜을 감고있는 저 나무 우리 정령 버릴 날이 있다면 마지막판거리의 총가목을 만들리라!

방향을 가리키는 라침판이 있어

사람은 먼길도 편차없이 간다 신천이어 너가 있는 땅에서 우리 세대는 계급의 탈선을 모른다!

참판을 마치고

박물판을 나서는 마음 폭우를 땅속을 불려 찾건만 신천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

단두대의 총계를 오르면서도 고개들여 만들어올린 우리의 하늘

우뢰치고 번개치는 이 가슴에 나는 저 하늘을 안고나선다

아 한복숨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갈 푸른 하늘-내 조국을!

증오의 단시

피의 년륜을 감고있는 저 나무 우리 정령 버릴 날이 있다면 마지막판거리의 총가목을 만들리라!

방향을 가리키는 라침판이 있어

사람은 먼길도 편차없이 간다 신천이어 너가 있는 땅에서 우리 세대는 계급의 탈선을 모른다!

참판을 마치고

박물판을 나서는 마음 폭우를 땅속을 불려 찾건만 신천의 하늘은 맑고 푸르다

단두대의 총계를 오르면서도 고개들여 만들어올린 우리의 하늘

우뢰치고 번개치는 이 가슴에 나는 저 하늘을 안고나선다

아 한복숨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갈 푸른 하늘-내 조국을!

주인에 대한 생각

벼이삭들은 들에 가득히 물결치는데 말머리에 앉아 낫을 가는 신천의 농민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날도 이런 때 이런 가을날

흐릿한 작황을 한가슴에 안아 보며

사람들은 수확의 낫을 갈았겠지

허나 어찌 알았으랴

이름이삭 한줌도 베어 못 본체 그 낫이 원수의 손에 쥐어질줄은 고향의 들판은 가슴이 아닌 살륙의 피로 물들었나

분하구나 신천사람들

익어가는 이삭때문에 고향을 못 떠났던가

50년대 그 가슴에 서있는것이나

이제는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리도 환희에 찼던 생들이

하루일 마친 즐거운 저녁

젓은 수건 목에 걸친 전야의 주인들

내우에선 하루 한 일 복수의 일기로 적고

뜨락뜰에 가득 실은 알찬 이삭들도

내우에선 복수의 무게로 계산 되거니

놓지 않으리라

신군세월의 벽한 살림 다 안기엔 비록 네가 비좁다 해도 너 아닌 새 다리를

우린 결코 놓지 않으리라

아 커가는 우리의 행복을 건네

우며

락원의 기슭을 이어주는 다리는 많아도

력사가 남긴 피의 교환을 세대와 세대로 이어주며

오늘도 서있는 석당교

변하고 또 변하라

마을이여 들어와 산천이여

하나 석당교

너만은 서있으라 50년대 그 가슴에

오 신천의 결산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새 다리를 놓지 않는다

산기슭에 솟아나는 선경마을들 옛 모습을 털어버린 드넓은 벌이 땅은 물라보게 변모되건만 석당교, 어이하여 너만은

50년대 그 가슴에 서있는것이나

이제는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리도 환희에 찼던 생들이

우리는 새 다리를 놓지 않는다

50년대 그 가슴에 서있는것이나

이제는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리도 환희에 찼던 생들이

혈

물결이여 물려있어 해마다 내 여기 찾아왔더니 피덩이같은 백색어린이를 흙속에 묻은채 억이 막혀

말도 없는 신천의 봉분

이제라도 땅뒀이를 흔들어 보이면

금시 뒀겨나올것만 같은 첫머리들아

이 몸의 피를 갈라낸 혈분이어서 너희들은 내 가슴에 맺혀있는가

이름도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

어찌 그것으로만 혈육을 말하랴

대를 두고 풀지 못한 민족의 원한속에

너희들은 우리와

피로 얽힌 정 맺고있어

어른들은

이

이 한을 다 못 풀체 해마다 먹은 나이를 아프게 세고 아이들은 이 봉분에 꽃을 놓으며 해마다 증오의 나이를 먹나니

총검이 서리말치는 전초가 그 어느 가슴엔들 너희들이 없으랴

쇠물을 쪼이고 오편을 익히는 그 어느 심장엔들 너희들이 없으랴

순간이나마 너를 잊고 사는 생이 있다면 그 삶은 또다시 흙에 묻히리

아 먼저 간 자식은 땅이 아닌 엄마의 가슴에 묻힌 다지만 그 어머니처럼 함께 묻힌 신천의 아이들

우리는 복수로 늙는 수천만의 가슴에 묻고산다

경계선

좁은 강을 사이에 두고

앞에서

하나의 표식만이 내앞에 있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계급교양이다

행복한 삶의 련전, 인권의 불모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격정, 입을 걱정, 치료받을 걱정, 공부할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을 비롯하여 온갖 걱정을 모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지난 25일 집일성평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 광란국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기 위한 평양시군민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말그대로 우리의 잊지 않는 그 무슨 《인권》을 거들면서 미쳐달리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준벌히 규탄하는 성토장이었고 원수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불꽃을 맹세가 새겨져 끓어번진 불꽃가니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대조선 《인권》 광란국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분노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갈판하듯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인민의 지상락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년로자들과 어린이들이 부림없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성에서 년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인민적책임들은 년로와 년대를 이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과 공로자들은 년로자로서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받으며 건강한 몸으로 보람 있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가고있다.

년로자들의 생활환경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장수자들의 대렬이 높아지고 그에 맞게 장수자들을 보호하고 장수형성을 널리 소개하며 90살이상의 년로자는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년로자들을 위한 우월한 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로동당시대의 귀동자, 귀동녀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이 받아안는 은정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송도원구제소년단야영소, 평양유아원, 애원들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 그것은 그대로 어린이들을 온갖 령으로 미발달하며 온갖 혜택을 다 베풀어주는 내 조국의 창조물인 미제이다.

그 어느 육아원이나 애육원, 양로원에 가보아도 좋다.

자본주의사회라면 길가의 조악물처럼 버림받고 가늘의 왕이 든 락원처럼 홀날리움을 부모없는 어린이들과 들뜬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퍼진다.

그러나 이른바 《만민정동》을 부르짖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는 어떠한가.

미국에서는 날마다 빈곤자들의 대렬이 늘어나 사회의 커다란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기업들의 파산과 경영난으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일자리가 없으면 빈곤선에서 생활하고는 시달려야 하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보다 더 한심한것은 개인주의가 극치를 이룬 미국사회에서 빗뚱뚱이 놀려 한가족이 하루아침에 한지에 나앉고 가정의 파란으로 졸지에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이 천천천이라고 찾아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것이다.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어라하는것이 바로 미제가 떠드는 인권이다.

미국의 한 교수는 자국에서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하면서 합법적인 소송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미군의 물고물학대는 이미 알려졌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자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자랑하고 우리를 표시하였다.

년로자들과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특별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주의의 대조선 《인권》 때문에 사회의 패배를 받아야 하는 자본주의사회! 과연 어느 사회가 자주적인 인간의 행복한 삶이 꽃피는 터전이고 어느 사회가 인권의 불모지인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사회의 관심과 특별속에 미친듯이 버려지고 홀날리움을 부모없는 어린이들과 들뜬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퍼진다.

그러나 이른바 《만민정동》을 부르짖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는 어떠한가.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의 본분이 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선민공의 본분은 제품을 잘 꾸는것이며 직공의 본분은 천을 잘 짜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자기 맡은 사물에 따르는 사회적직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본분은 직업적이건 전업적이건 계급적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루하루 신천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대들을 잘 교양하는 것은 전세대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신천사람들이 쏟아내지실부터 23년간을 강사로 일해온 박영숙동무가 있다.

며칠전 신천박물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 뵈은 그는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신천사람. 이 땅에 태를 묻은 복수자이다.》

나의 일터는 계급 교양의 전초선, 이 땅에 태를 묻은 원수님 불러 주신 우리 당의 핵심, 직업적인 혁명가답게 맡은 일을 잘하여 신천사람의 본분을 다 하리라.》

원한의 화약창고에서 구사일

생으로 살아난 주상원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날 저녁 가슴에 붉은 격정을 받아들이며 전하였다. 《말이야,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들어 총대를 더 억세게 틀어쥐거라. 너는 신천의 복수자이다.》

신천! 미제원수놈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살아남은 주상원동무가 있다.

그 땅에서 한생을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후대들에게 고발해 온 주상원동무가 있다.

16년전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천박물관 강사 주상원동무를 친히 만나시어 사랑의 힘에 안아주시고 우리 당의 핵심답게 언제나 계급적인 본분을 지켜가도록 따뜻이 고교려해 주시었다.

어린 복수자였던 그도 이제는 백발의 로인이다. 허나 그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계급의식, 혁명적 정신을 심어주며 원한의 화약창고앞에 오늘도 서 있다.

지금도 그일에 서면 들려오

는듯싶다. 타래쳐오르는 불길속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부르던 어머니들의 피타는 절규와 어머니를 찾으며 애처롭게 울부짖던 어린이들의 비명소리가.

미제는 신천땅을 강경하였던 52일 동안에 당시 군수인인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명의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세대대 후대들의 가슴속에 새겨 주어야 한다.

신천땅의 피의 교환,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친만년세월이 가도 만천하에 전해가야 할 무고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신천사람들에게 지워졌다.

신천 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고 하시면서 적에 대한 립발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친만부당한 대조선 《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여러차례 작당하였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때 신천박물관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뵈오며 온 신천사람들이 격정으로 끓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 지지도는 주상원, 박영숙동무들만이 아닌 신천사람 모두에게

피결은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의 본분을 심장깊이 새겨주었다. 아니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가슴속에 분별된 세대의 본분을 심장에 쏘아박듯 새겨 주었다.

지금도 많은 참관자들이 신천 박물관을 찾고있다.

다시는 미제의 더러운 군화발이 이 땅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혁명의 무기, 계급의 총창을 날카로이 버리며 새 세대들이 신천땅을 찾는다.

사회적분부에 계급적본분이 있다.

오늘도 원한의 령훈들이 떠도는 피의 땅에서 그들은 다시금 새겨안는다.

우리는 모두다 신천사람들이다. 우리의 본분은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반미 계급의식을 높여주어

계급교양거점들 잘 꾸려놓고

잡물리에서 계급교양거점들을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미일침략자들과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적본성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진자료들을 새로 보충하고 모든 작업반에서 참관을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복수결의모임, 이야기모임, 음반모임 등을 실효성있게 조직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불리는 격격성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맑은 혁명파업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리봉동동무는 제4작업반원들앞에서 미일침략자들의 치명리는 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을 해설하면서 피의 교환을 잊지 말고 기어이 천백배로 복수하자고 격정에 넘쳐 호소하였다. 이어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한 작업반원들은 미일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는 심정으로 당면한 영웅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거나 결의를 다지였다.

로봉동원원 김정호

들앞에서 현시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대해 폭로하면서 모든 농장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의 야수적폭격에서도 전신적량산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애국농민들의 조국수호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농업전선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왔다.

지금 농장원들은 미제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수라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적들의 가슴에 총창을 박는 심정으로 맑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봉동원원 리명순



살인귀 미제의 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한다. (적음)



